



한국소비자원

소비에 가치를! 시장에 신뢰를!

보 도 자 료

보도 일시	2025. 11. 13.(목) 12:00 <11. 14.(금) 조간>	배포일	2025. 11. 12.(수)
담당 부서	위해정보국 위해예방팀	담당자	김소영 팀 장(043-880-5421) 정형우 대 리(043-880-5426)
담당 부서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안전교육과	담당자	김민지 과 장(044-200-4418) 조상훈 사무관(044-200-4420)

[소비자안전주의보]

고령자, 버스·지하철 이용 시 낙상사고에 주의하세요!

버스·지하철 등 대중교통 이용 중에 발생하는 안전사고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특히 고령자 낙상 사고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는 버스·지하철 내 고령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소비자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

2022년부터 2025년 7월까지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버스·지하철 관련 안전사고는 총 1,034건이며, 2022년 125건에서 2024년 460건으로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다.

※ 연도별 접수 건수 : ('22년) 125건 → ('23년) 204건 → ('24년) 460건 → ('25년 7월) 245건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 Consumer Injury Surveillance System):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전국 58개 병원, 52개 소방서, 2개 유관기관 등 112개 위해정보제출기관과 1372소비자상담센터 등을 통해 위해정보를 수집·분석·평가하는 시스템

□ 버스·지하철 안전사고 고령자에게 가장 많이 발생해

어린이부터 고령자까지 생애주기별*로 버스·지하철 안전사고 발생빈도를 분석한 결과, 65세 이상 '고령자'의 안전사고 발생이 인구 십만 명당 5.08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는 두 번째로 발생 빈도가 높은 '장년층' (1.59건)보다도 3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생애주기별 인구 십만 명당 버스·지하철 안전사고 발생빈도 현황>

구분	어린이 (8~12세)	청소년 (13~18세)	청년 (19~34세)	중년 (35~49세)	장년 (50~64세)	고령자 (65세~)
인구 십만 명당 발생건수(건)	0.66	0.83	1.05	0.62	1.59	5.08

* 생애주기별 연령대 세분화 기준은 (붙임 1) 참조

□ 버스·지하철 고령자 안전사고 10건 중 9건은 낙상

버스·지하철에서 발생한 고령자 안전사고(581건)의 원인을 살펴보면, 미끄러져 넘어지거나 추락하는 ‘낙상’이 531건(91.4%)으로 대부분이었고, ‘눌림·끼임’ 22건(3.8%), ‘부딪힘’ 15건(2.6%)의 순이었다.

주요 부상 부위는 ‘머리 및 얼굴’이 233건(40.1%)으로 가장 많았고, ‘둔부·다리·발’ 148건(25.5%), ‘몸통’ 116건(20.0%)이 그 뒤를 이었다.

‘머리 및 얼굴’을 다쳐 뇌 손상 등의 증상으로 이어지는 경우 단순한 사고를 넘어 생명을 위협하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또한 뼈와 근육이 약해진 고령자는 작은 사고에도 골절 등의 심각한 부상을 입을 수 있어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 쌀쌀한 날씨에는 근육·혈관 수축으로 낙상에 더욱 취약, 예방이 최우선

일교차가 크고 기온이 낮아질수록 근육과 혈관이 수축해 낙상에 취약해질 수 있다. 특히 돌발 상황이 잦은 버스와 지하철에서는 낙상 등 안전사고의 발생 가능성이 더욱 높다.

이에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버스·지하철에서의 고령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 승·하차 시 차량이 완전히 멈추었는지 확인할 것, ▲ 승차 후 반드시 손잡이를 잡아 균형을 잃지 않도록 할 것, ▲ 하차하기 전 주변이 안전한지 확인할 것 등을 당부했다.

아울러 고령자의 안전 인식 확산을 위해 상황별 낙상 위험과 예방 방안을 담은 홍보 영상을 제작해 한국소비자원 누리집* 및 ‘보e다’ 등 온라인 교육 플랫폼을 통해 배포했다. 또한 고령자의 버스 낙상 위험이 높은 점을 고려하여, 버스 내부 매체에 낙상예방 영상을 송출해 고령자들이 각별히 주의할 수 있도록 했다.

* 홍보 영상 확인: 한국소비자원 누리집 > 소비자뉴스 > 공지사항

물품 등의 사용 중 안전사고를 경험했거나 사고 우려가 있는 경우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제보 혹은 신고할 수 있습니다.

[위해정보 신고]

- (홈페이지) www.ciss.go.kr에서 ‘위해정보 신고하기’ 클릭
- (핫라인) 국번없이 080-900-3500



위해정보 신고

- 붙임 1. ‘버스·지하철 관련 고령자 위해정보 분석’ 결과
2. 소비자 안전사고 사례
3. 소비자 주의사항

1 버스·지하철 관련 위해정보 접수 현황(전체)

- (연도별) 2022년부터 2025년 7월까지 버스·지하철 관련 안전사고는 1,034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2024년도에는 460건으로 전년(204건) 대비 125.5%(256건) 증가함

<버스·지하철 연도별 위해정보 접수 현황>

(단위: 건)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7월)	합 계
버스	97	123	362	194	776
지하철	28	81	98	51	258
합계	125	204	460	245	1,034

- (생애주기별) 1,034건의 안전사고를 생애주기별로 살펴보면, 고령자가 581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장년 204건, 청년 106건이었음
- 인구 십만 명당 안전사고 발생빈도를 확인한 결과, 고령자가 5.08건으로 가장 높았고, 이어서 장년 1.59건, 청년 1.05건 등의 순이었음

<생애주기별 버스·지하철 위해정보 접수 현황>

구분	어린이 (8~12세)		청소년 (13~18세)		청년 (19~34세)		중년 (35~49세)		장년 (50~64세)		고령자 (65세~)		합계	
	건수	발생 빈도*	건수	발생 빈도	건수	발생 빈도	건수	발생 빈도	건수	발생 빈도	건수	발생 빈도	건수	발생 빈도
2022	5	0.22	5	0.18	19	0.19	11	0.10	30	0.24	50	0.41	120	0.24
2023	5	0.22	5	0.18	27	0.27	16	0.15	39	0.31	97	0.76	189	0.40
2024	5	0.22	6	0.22	43	0.43	27	0.25	93	0.73	284	2.12	458	1.1
2025 (~7월)	-	-	7	0.25	17	0.17	14	0.22	42	0.33	150	3.22	230	0.53
합계	15	0.66	23	0.83	106	1.05	68	0.62	204	1.59	581	5.08	997**	2.01

*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시군구/성/연령(1세)별 주민등록 연앙인구 기준, 인구 십만 명당 발생빈도

** 위해자 연령대를 알 수 없거나 상황 인지능력이 없는 7세 미만 영유아 등 37건 제외

※ (생애주기별 연령대 세분화 기준) 각 법률 목적에 따라 연령대별 기준이 상이하므로 관련 법률과 통상적인 소비자 라이프스타일에 따른 생활 습관 등을 고려하여 세분화

- (어린이안전법) 13세 미만의 사람을 ‘어린이’라고 함
- (청소년보호법) 19세 미만을 ‘청소년’이라고 함
- (청년기본법) 19세 이상 34세 이하를 ‘청년’이라고 함
- (노인복지법) 65세 이상을 ‘노인’이라고 함

* 민법상 19세 이상을 성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청년·성인(중장년)·고령자 구분을 위해 세분화함 (정부 정책 및 지자체 조례 등에 따른 분류 참고)

2 버스·지하철 관련 '고령자' 위해정보 접수 현황

- (연도별) 최근 3년간 접수된 버스·지하철 관련 고령자 안전사고는 581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2024년에는 284건으로 전년(97건) 대비 192.8%(187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연도별 버스·지하철 고령자 위해정보 접수 현황>

[[단위: 건, (%))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7월)		합 계	
버스	전체	97		123		362		194		776	
	고령자	40	(41.2)	56	(45.5)	218	(60.2)	115	(59.3)	429	(55.3)
지하철	전체	28		81		98		51		258	
	고령자	10	(35.7)	41	(50.6)	66	(67.3)	35	(68.6)	152	(58.9)
합계	전체	125		204		460		245		1,034	
	고령자	50	(40.0)	97	(47.6)	284	(61.7)	150	(61.2)	581	(56.2)

- (위해원인별) 주요 위해원인은 낙상(미끄러짐·넘어짐, 추락)으로 전체 안전사고(581건)의 91.4%(531건)을 차지함

<위해원인별 버스·지하철 고령자 위해정보 접수 현황>

[[단위: 건, (%))

구 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7월)		합계	
물리적 충격	미끄러짐· 넘어짐	38	(76.0)	79	(81.4)	263	(92.6)	143	(95.3)	523	(90.0)
	추락	0	(0.0)	1	(1.0)	6	(2.1)	1	(0.7)	8	(1.4)
	눌림·끼임	9	(18.0)	5	(5.2)	8	(2.8)	0	(0.0)	22	(3.8)
	부딪힘	2	(4.0)	9	(9.3)	1	(0.4)	3	(2.0)	15	(2.6)
	기 타	1	(2.0)	3	(3.1)	5	(1.8)	2	(1.3)	11	(1.9)
시설물 위험	예리함· 마감처리 불량	0	(0.0)	0	(0.0)	1	(0.4)	1	(0.7)	2	(0.3)
합계		50	(100.0)	97	(100.0)	284	(100.0)	150	(100.0)	581	(100.0)

□ (위해부위별) 주요 위해부위를 살펴보면, ‘머리 및 얼굴’ 이 233건(40.1%)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둔부·다리·발’ 148건(25.5%), ‘몸통’ 116건(20.0%) 등의 순이었음

<위해부위별 버스·지하철 고령자 위해정보 접수 현황>

[(단위: 건, (%))]

구 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7월)		합 계	
머리 및 얼굴	21	(42.0)	40	(41.2)	117	(41.2)	55	(36.7)	233	(40.1)
둔부, 다리 및 발	10	(20.0)	24	(24.7)	69	(24.3)	45	(30.0)	148	(25.5)
몸통	8	(16.0)	15	(15.5)	62	(21.8)	31	(20.7)	116	(20.0)
팔 및 손	8	(16.0)	12	(12.4)	21	(7.4)	10	(6.7)	51	(8.8)
목 및 어깨	3	(6.0)	6	(6.2)	14	(4.9)	9	(6.0)	32	(5.5)
소화계통	0	(0.0)	0	(0.0)	1	(0.4)	0	(0.0)	1	(0.2)
합계	50	(100.0)	97	(100.0)	284	(100.0)	150	(100.0)	581	(100.0)

□ (위해증상별) 주요 위해증상을 살펴보면, ‘타박상’이 238건(41.0%)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열상(찢어짐)’ 117건(20.1%), ‘골절’ 84건(14.5%) 등의 순이었음

<위해증상별 버스·지하철 고령자 위해정보 접수 현황>

[(단위: 건, (%))]

구 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7월)		합 계	
타박상	14	(28.0)	15	(15.5)	135	(47.5)	74	(49.3)	238	(41.0)
열상(찢어짐)	12	(24.0)	24	(24.7)	56	(19.7)	25	(16.7)	117	(20.1)
골절	14	(28.0)	33	(34.0)	22	(7.7)	15	(10.0)	84	(14.5)
부종	1	(2.0)	1	(1.0)	20	(7.0)	13	(8.7)	35	(6.0)
찰과상	3	(6.0)	3	(3.1)	20	(7.0)	7	(4.7)	33	(5.7)
출혈 및 혈종	-	-	3	(3.1)	6	(2.1)	3	(2.0)	12	(2.1)
뇌진탕	3	(6.0)	3	(3.1)	-	-	2	(1.3)	9	(1.5)
기타*	3	(6.0)	15	(15.5)	25	(8.8)	11	(7.3)	53	(9.1)
합계	50	(100.0)	97	(100.0)	284	(100.0)	150	(100.0)	581	(100.0)

* 기타 피부 손상, 안구손상, 절상(베임), 출혈, , 염좌, 탈구 등

머리 및 얼굴

- ☐ (65세, 여) 버스에서 내리다 뒷문에 끼어 넘어지면서 뇌진탕 증상 발생
- ☐ (67세, 남) 지하철에 승차하면서 지하철 문에 머리를 부딪혀 이마에 타박상 입음
- ☐ (81세, 여) 버스에서 내리다 발을 잘못 디더 넘어지면서 이마가 찢어짐
- ☐ (76세, 여) 지하철에 승차 후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코뼈가 부러짐

둔부 · 다리 · 발

- ☐ (86세, 남) 버스 계단에서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다리가 골절됨
- ☐ (70세, 여) 지하철이 급정거하여 넘어지면서 둔부에 타박상을 입음
- ☐ (77세, 여) 버스에서 내리다 문에 발이 끼어 발이 골절됨
- ☐ (71세, 여) 지하철 차량과 역사 사이 틈에 다리가 빠져 타박상을 입음

몸통

- ☐ (74세, 남) 버스에서 넘어지면서 좌석 손잡이에 부딪혀 허리 통증 발생
- ☐ (65세, 여) 지하철에서 내리던 중 지하철 문에 끼어 가슴 통증 발생
- ☐ (88세, 여) 지하철에서 내리던 중 뒤로 넘어져 등에 타박상을 입음
- ☐ (77세, 남) 버스 계단에서 미끄러지며 모서리에 부딪혀 옆구리에 타박상 발생

버스

- 버스가 완전히 정차한 후 문이 열리면 천천히 승차한다.
- 버스에 승차한 후에는 가급적 좌석에 앉고, 입석시에는 반드시 손잡이나 기둥을 잡아 중심을 유지한다.
- 하차 전 목적지를 확인해 미리 준비하고, 완전히 정차한 후 자리에서 일어난다.
- 하차할 때 자전거나 오토바이가 오지 않는지 좌우를 확인하고, 내딛는 곳이 위험하지 않는지 발 밑을 확인한다.

지하철

- 승강장 안전선 뒤에서 줄을 서서 기다리고, 출입문이 열리면 내리는 사람이 먼저 내린 후 차례대로 승차한다.
- 만약 승차하기 전 문이 닫히면 무리하게 타지 말고 다음 열차를 기다린다.
- 지하철 안에서는 출입문에 기대지 말고 넘어지지 않도록 손잡이나 기둥을 잡아 중심을 유지한다.
- 하차할 때 다른 승객을 밀지 말고, 승강장과 열차 사이 틈에 발이 빠지지 않도록 주의한다.
- 도움이 필요하면 비상통화장치를 이용해 역무원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 에스컬레이터 이용 시에는 걸거나 뛰지 않고, 반드시 손잡이를 잡는다.